

서술시의 소통구조 연구

고 현 철*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서술시의 소통구조 유형 |
| 2. 서술시와 소통구조론 | 4. 맺음말 |

1. 머리말

서술시(narrative poem)는 이야기를 서술형식을 통하여 형상화한 시를 말한다. 넓은 개념으로 서술시는 서술적 서정시 뿐만 아니라 서사시, 서사 민요도 포함한다. 그래서 서술시는 서정시 계열에도 서사시 계열에도 귀속시킬 수 있다.¹⁾ 그런데, 이 글에서 사용하는 서술시라는 용어는, 서사시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 아니라 '서술적 서정시'라는 좁은 개념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서사시·서사 민요와 서술적 서정시를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서사시와 서술적 서정시는 다같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화법의 면에서 서사시는 서술자에 의한 대상의 재현인 서술과 작중인물에 의한 대상의 재현인 대화가 교대되는 혼합화법을 취하지만,²⁾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김준오, 『한국 현대 장르 비평론』(문학과지성사, 1990), 181쪽.

서술적 서정시는 근본적으로 서술이라는 주석적 화법을 취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두 계열은 서로 장르가 다르다.³⁾ 그리고 서술적 서정시 즉, 서술시에서 이야기는, 서사장르에서의 이야기와는 달리, 함축적인 이야기(implied narrative)가 된다.⁴⁾ 서술시는 서사시와는 장르의 범주면에서 다른 것에 해당한다. 서사시는 서사장르에 속하지만, 서술시는 서정장르에 속한다. 서술시에서 이야기와 서술은 시인이 적절한 시적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 채용하는 서정장르의 한 장치가 된다.⁵⁾

그런데, 서사시는 영웅서사시와 다른 모습으로 현대사회에서도 씌어지고 있다. 그래서 서사시가 소설로 전환되는 산문과 운문이 분화되기 이전의 서사시와 분화된 이후의 서사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⁶⁾ 예컨대, 김동환의 「국경의 밤」은 현대의 서사시이다. 무엇보다도 「국경의 밤」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서술과 대화가 교대되는 혼합화법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서사시와 서술시(서술적 서정시)를 뚜렷하게 구별코자 하는 것은 이 글이 다룰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⁷⁾ 서사시와 서술시는 장르가 다른 만큼 이야기의 성격, 화법 그리고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소통구조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서술시'만을 분리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김준오, 「서술시의 서사학」, 『시와 사상』 제9호(빛남, 1996.여름), 28-29쪽.

3) 폴 헤르나디(김준오 역), 『장르론- 문학분류의 새 방법』(문장사, 1983), 71-75쪽. 여기서 화법에 따른 장르 구분의 이론을 요약하고 있다.

4) L.J.Zillman, 『The Art and Craft of Poetry』, 123쪽. 여기서는 김준오, 「시와 설화」, 『시론』(제1판: 문장사, 1982), 303쪽.

5) 김준오, 「서술시의 서사학」, 『시와 사상』 제9호, 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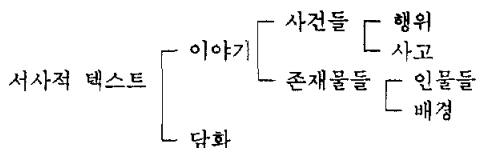
6) 황병하, 「라틴 아메리카의 이야기시」, 『시와 사상』 제9호, 73쪽.

7) 고형진, 『한국 현대시의 서사지향성 연구』(시와시학사, 1995)의 제1부 「1920-30년대 시의 서사지향성과 시적 구조」는 김동환의 서사시와 백석·이용악의 서술시를 범주 구분 없이 '서사지향성'이라는 막연한 개념으로 같은 차원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필자가 쓰고 있는 이 글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여 김동환의 서사시 같은 것은 연구대상이 되지 않고 백석·이용악의 서술적 서정시 즉, 서술시 같은 것만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서술시와 소통구조론

주네트는 『서술 담론』에서 이야기와 서술물 그리고 서술행위를 구분한다. 그는 서술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발화체·서술 텍스트에 대해서는 ‘서술물’을, 서술 생산 활동에 대해서는 ‘서술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는, 서술 담론의 분석은 본질적으로 서술물과 이야기 사이의 관계, 서술물과 서술행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야기와 서술행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라 언명하고 있다.⁸⁾ 주네트는 토도로프가 언급한 서술의 세 가지 범주인 시간과 시점 그리고 양태를 이 세 가지 관계에 적용시킨다. 여기서 시간은 이야기의 시간과 담론(서술물)의 시간 사이의 관계를, 시점은 서술자가 이야기를 인식하는 방법을, 양태는 서술자가 이용하는 담론(서술물)의 형태를 의미한다.⁹⁾

한편, 채트먼은 『이야기와 담화』에서 서사적 텍스트를 다음 도표와 같이 이야기(story)와 담화(discourse)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는 서사적 텍스트의 ‘무엇’에 해당하고 담화는 서사적 텍스트의 ‘어떻게’에 해당한다. 그런데 담화는 이야기가 전달되는 수단으로서 서사적 전달의 구조를 지닌다. 의사소통되는 것은 이야기이고 이는 담화에 의해 소통되는 것이다.¹⁰⁾ 그리하여 채트먼은 서사적 텍스트의 소통구조를 다음과 같이 도표화한다.¹¹⁾

8) 제라르 주네트(김종갑 역), 『서술 이론』(『서술 담론』의 서론),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술, 1997), 42-43쪽.

9) 위의 논문, 45-48쪽.

10) 시모어 채트먼(김경수 역), 『이야기와 담화-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민음사, 1990), 9-35쪽. 번역된 책의 제목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 책의 원제가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이므로 ‘이야기와 담화’를 표제로 드러내기로 한다.

11) 위의 책, 183쪽. 위의 도표에서 ‘피서술자’는 이 책에서 ‘피화자’로 번역되어 있

서사적 텍스트

실제작가 · · · → 내포작가 → (서술자) → (피서술자) → 내포독자 · · · → 실제독자

이러한 소통구조는 직접적으로 시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양태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그런데, 서술시를 분석·검토할 때 활용되는 소통구조론은 앞에 언급한 사항에서 굴절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술시의 소통구조의 경우, 원래 서사장르인 서사적 텍스트와는 달리, 서정시의 한 양상인 서술시(서술적 서정시)의 텍스트 내에서 어디까지가 이야기의 범위에 속하는지 하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서술자의 시점 문제도 바로 이 이야기의 범위 문제와 관련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3. 서술시의 소통구조 유형

서술시의 소통구조는, 앞에 보인 채트먼의, 서사적 텍스트의 소통구조를 활용하되, 서술시(서술적 서정시)라는 양식적 특성에 맞추어 그 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¹²⁾ 서술시는 서정시의 특수한 한 양식에 속한다. 여기서 특수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서정시가 ‘이야기’를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서술시는

으나 필자는 ‘서술자’와 상대되는 인격적 요소로서 ‘피서술자’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이 글에서 ‘피서술자’라는 용어를 사용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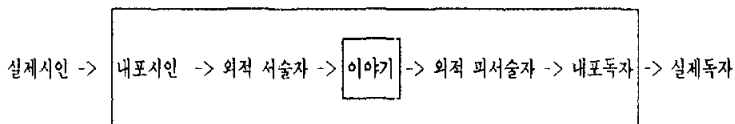
- 12) 서술시의 소통구조를 살펴본 논문으로, 이수남, 「한국 현대 서술시의 특성 연구 - 임화, 박세영, 백석, 이용악의 시를 중심으로」(부산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5.8)가 있다. 이 논문에서, 서술시의 소통구조(담화양상)을 ‘표면에 나타난 화자와 청자’, ‘현상적 화자만 나타나는 경우’, ‘현상적 청자만 나타나는 경우’, ‘나타나지 않는 화자와 청자’의 네 가지 경우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서술시에서 이야기의 범위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서정시 일반의 소통구조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어 서술시(서술적 서정시)의 소통구조의 특성을 뚜렷이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김준오, 『시론』(제3판: 삼지원, 1991), 204-209 쪽을 보면, 이 논문에서 보이고 있는 네 가지의 소통구조가 서정시 일반의 소통구조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시적 서정시의 하위유형의 하나가 된다.¹³⁾ 그런데, 이 경우 이야기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함축적인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서술자의 화법에 의해서만 표현된다. 서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서술자와 인물의 혼합 화법으로 표현되는 것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

먼저, 이야기와 서술자의 관계에서 서술자가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한 인물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앞 경우의 서술자를 '내적 서술자', 뒤 경우의 서술자를 '외적 서술자'로 명명코자 한다. 이 경우 '내/외'는 '이야기' 내/외를 의미한다. 그런데, 서술시에서 외적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할 경우 피서술자는 오직 외적 서술자의 경우밖에 없다. 이야기의 세계 밖에 존재하는 서술자 즉, 외적 서술자가 자신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한 인물 즉, 내적 피서술자에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술자와 피서술자는 이야기의 세계 밖에 존재하는 외적 서술자와 외적 피서술자가 된다. 이러한 서술시의 소통구조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서술시의 소통구조 (1)

서술시 텍스트



위의 도표에서 큰 상자는 서술시의 텍스트 전체를 가리키고 작은 상자는 이야기 세계의 범위를 가리킨다. 내포시인은 서사적 텍스트의 내포작가에 해당하는데, 서술시 텍스트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주체이며 내포독자를 상대하게 된다. 내포독자 역시 텍스트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인격적 요소이다. 이 소통구조 (1)은, 외적 서술자가 이야기의 세계 밖에서 역시 이야기의 세계 밖에 존재하는 외적 서술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구조이다. 이때 내포시인은 서술행

13) 디이터 램핑(장영태 역), 『서정시: 이론과 역사』(문학과지성사, 1994), 189쪽. 여기서 '이야기시'(이야기체의 서정시)는 이 글에서의 '서술시'와 그 개념이 같은 것에 해당한다.

위의 주체가 되고 외적 서술자는 이야기의 주체가 된다. 서술시의 경우 서술행위의 주체는 늘 이야기의 밖에 존재하는 인격적 요소이다. 이에 비해 이야기의 주체는 이야기의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밖에 존재할 수도 있는 인격적 요소이다. 이와 같이 서술행위의 주체와 이야기의 주체는 언제나 구분이 가능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서술시의 소통구조 (1)의 경우는, 서술행위의 주체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주체도 이야기의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¹⁴⁾ 이 소통구조 (1)을 지니고 있는 서술시의 예로 서정주의 「신부」를 들 수 있다.

新婦는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귀밀머리만 풀리운 채 新郎하고 첫
날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新郎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
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쩌귀에 걸렸습니다. ……(중략)…… 안스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재가 되어 폭삭 내려
앉아 버렸습니다. 초록 재와 다홍 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 서정주, 「新婦」¹⁵⁾

이 텍스트는 작중인물인 신랑과 신부에 얽힌 슬픈 이야기를 이야기 밖의 서술자인 외적 서술자가 전해주고 있는 서술시 텍스트에 해당한다. 피서술자 역시 이야기의 밖에 존재하는 외적 피서술자이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전달되는 이야기는 이야기 주체의 개입이 최대한 억제되어 객관화되고 있다. 이 텍스트의 이야기에 내재된 비극성은 신랑과 신부의 대립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랑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의 상징에 해당하고 신부는 주술적이고 초논리적인 것의 상징에 해당한다.¹⁶⁾ 이야기의 세계 밖에 존재하는 이야기의 주체인 외적 서술자가 이야기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역시 이야기의 세계 밖에 존재하는 외적 피서술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서술자의 전지적인 권위 때문이다. 여기서 서술자의 전지적 권위는, 이 서술시 텍스트가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적층의 설화양식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4) 앤터니 이스톱(박인기 역), 『시와 담론』(지식산업사, 1994), 75-79쪽 참고. 여기서 언술행위의 주체와 언술내용의 주체를 구분하고 있는데, 서술시의 경우 언술행위의 주체는 서술행위의 주체와, 언술내용의 주체는 이야기의 주체와 상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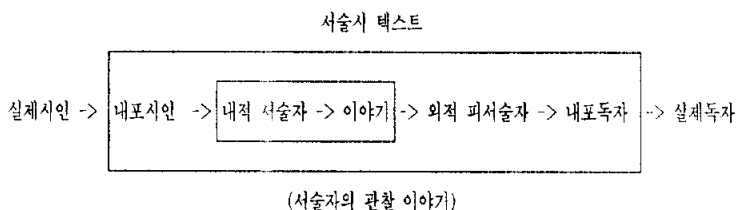
15) 서정주, 『미당 서정주 시 전집』(민음사, 1983).

16) 김준오, 「시와 설화」, 『시론』(제1판: 문장사, 1982), 303쪽.

이와 같이 서술시의 소통구조 (1)은 이야기를 서술자의 권위에 힘입어 서술하는 경우가 된다. 이때 이야기는 서술적 거리의 확보에 따라 최대한의 객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소통구조는 서술행위의 주체인 내포시인이 집단적이고 원형적인 이야기를 이야기의 주체인 서술자의 권위를 통하여 피서술자와 밀착되어 있는 내포독자에게 널리 수용되도록 하기에 적절한 유형에 해당한다.

서술시의 소통구조의 다음 유형은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서술자가 이야기의 세계 밖에 존재하는 외적 서술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경우도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서술자와 이야기의 관계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야기의 주체인 내적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타인의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자기 체험의 이야기와 타인 관찰의 이야기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는 서술적 거리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야기 주체의 자기 체험 이야기보다 타인 관찰 이야기가 보다 서술적 거리를 확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야기 주체의 내적 서술자가 타인 관찰의 이야기를 이야기의 세계 밖에 존재하는 외적 피서술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시의 소통구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서술시의 소통구조 (2)



위의 도표에서도 큰 상자는 서술시 텍스트의 범위를 가리키고 작은 상자는 이야기 세계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 경우 서술자는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지만 피서술자는 이야기의 세계 밖에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서술시의 소통구조를 지니고 있는 서술시의 예로 이용악의 「낡은 집」을 들 수 있다.

날로 밤으로 /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 대대손손에 물려줄 / 은동곳도 산

호관자도 갖지 못했나라 //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등글소 / 모두 없어진 지 오랜 /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
 새 그득하다만 / 털보네 간 곳을 아모도 모른다 // 찾길이 뇌이기 전 / 노루
 멧돼지 족제비 이런 것들이 / 앞뒤 산을 마음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 털보
 의 세째아들은 / 나의 싸리말 동무는 / 이 집 안방 짓두광우리 옆에서 /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중략)……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 마을
 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 탐스럽게 열던
 살구 /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¹⁷⁾

이 텍스트는 일곱 식솔의 털보네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식민지시
 대 조선 농민의 몰락상과 유이민의 실상을 전해주는 서술시 텍스트이다.¹⁸⁾ 여
 기서 이야기의 주체인 서술자는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서술자인
 데, 자신의 체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릴적 친구인 털보네 셋째 아들과 그 집안
 의 몰락 과정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관찰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서술시 「낡
 은 집」에서 제1·2·5·6·7·8연은 내적 서술자의 직접 관찰에 의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 제3·4연은 전해들은 내용을 간접화법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 서술시 텍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술적 거리의
 확보는 관찰자로서의 내적 서술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 서술자 자신이 관
 찰하지 못한 내용을 “울었다고 한다” 등의, 서술자를 통한, 인용의 간접화법으
 로 서술하는 것에도 있다. 그만큼 서술시 「낡은 집」은 관찰자로서의 서술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⁹⁾

이와 같이 서술시의 소통구조 (2)는 서술행위의 주체인 내포시인이 이야기
 의 주체인 내적 서술자의 관찰 이야기를 외적 서술자와 밀착되어 있는 내포독
 자로 하여금 내적 서술자의 관찰에 합하여 인식토록 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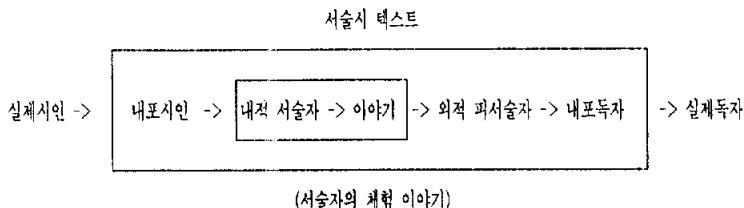
다음,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 이야기를 이야기
 의 세계 밖에 존재하는 피서술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시의 소통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7) 이용악, 『이용악 시 전집』(창작과비평사, 1988)

18) 윤영천, 「민족시의 전진과 좌절」, 위의 책 해설, 215-216쪽.

19) 황인교, 「〈낡은 집〉의 기호학적 분석- 이용악론」, 『현대시사상』(1991.봄), 170-171쪽.

서술시의 소통구조 (3)



이러한 소통구조는 앞에 보인 소통구조 (2)와 같으나, 이야기 주체로서의 서술자가 타인 관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체험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 경우 서술자는 이야기에 보다 밀착되어, 이야기의 보고자 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 표현도 곁들이게 된다. 이러한 서술시의 소통구조를 지니고 있는 서술시의 예로 신경림의 「農舞」를 들 수 있다.

정이 올린다 막이 내렸다 /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 학교 앞 소숫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 (중략)……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붙거나 / 고갯길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農舞」 20)

이 텍스트는 1970년대 초반의 궁핍한 농촌현실과 붕괴되어 가는 농촌공동체의 이야기를 바로 농민의 시각에서 전해주는 서술시 텍스트이다. 여기서 이야기 주체로서의 서술자는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바로 내적 서술자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때 피서술자는 이야기의 세계 밖에 존재하는 외적 피서술자이다. 그런데, 이 서술시에서 내적 서술자는 “우리”라는 집단적인 지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내적 서술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집단적인 농민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집단의식을 표면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 주체로서의 서술자가 지닌 집단의식은 이 서술시의 집단성·민중성이라는 지향을 드러내기 위해 앞다. 이 서술시 「農舞」에서의 이야기는 서술자의 관찰 이야기가 아니라 체험 이야기이므로, 이야기의 주체인 내적 서술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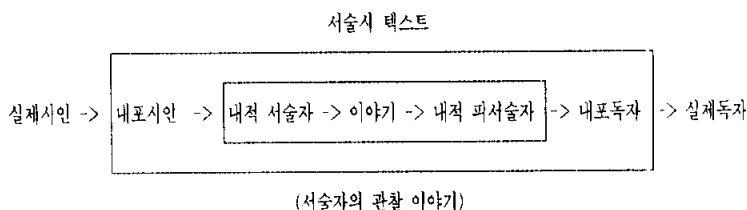
20) 신경림, 『農舞』(창작과비평사, 1975)

정서 표현과 결합되어 있다. 그만큼 서술적 거리는 짧은 셈이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등 서술자가 행하고 있는 분함과 절망감의 정서적 발언이 이를 말해준다.

이와 같이 서술시의 소통구조 (3)은 서술행위의 주체로서의 내포시인이 이야기 주체로서의 내적 서술자를 내세워 그가 겪고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 밖에 존재하는 외적 서술자와 밀착되어 있는 내포독자에게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내적 서술자의 정서에 공감토록 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서술시 소통구조의 새로운 유형은 이야기의 주체가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서술자일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상대도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피서술자일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도 이야기의 주체인 내적 서술자와 이야기의 관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야기의 주체인 내적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경우도 있지만 타인을 관찰한 이야기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서술자가 타인 관찰의 이야기를 역시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피서술자에게 전달하는 서술시의 소통구조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서술시의 소통구조 (4)



위의 도표에서 작은 상자는 이야기의 범위를 의미한다. 즉 이 소통구조의 경우 서술자 뿐만 아니라 피서술자도 이야기의 세계 내에 존재하는 인격적인 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때 서술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서술자가 피서술자를 관찰한 이야기를 피서술자에게 전해주든지 아니면 제3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든지 하게 된다. 그런데, 내적 서술자가 제3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내적 피서술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내적 서술자와 내적 피서술자가 다 같이 이야기의 세계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제3의 인물에 대한, 내적 피서술자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의 이야기를 내적 서술자가 전하는 상황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소통구조는 일반적으로 내적 서술자가 내적 피서술자를 관찰한 이야기를 내적 피서술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서술시의 소통구조를 지니고 있는 서술시의 예로 김명인의 「베트남 1」을 들 수 있다.

먼지를 일으키며 차가 떠났다, 로이 / 너는 달려오다 엎어지고 / 두고두고 포성에 뒤졌이던 산천도 끝없이 / 따라오며 먼지 속에 파묻혔다 오오래 / 떨칠 수 없는 나라의 여자, 로이 / 너는 거기까지 따라와 벌거벗던 내 누이 //(중략)..... 잊어야 할 것들 정작 잊히지 않는 땅 끝으로 끌려가며 / 나는 예사로운 일애조차 앞날 호려 어두운데 / 뻑뻑한 눈 비비고 또 볼수록, 로이 / 적실 것 더 없는 세상 너는 부질없어도 비 되어 내리는지 / 우리가 함께 맨살인데 몸 섞지 않고서야 그 무슨 / 우연으로 널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 로이, 만난대서 널 껴안을 수 있겠느냐

- 김명인, 「베트남 1」²¹⁾

이 서술시 텍스트의 서술자는 자신이 베트남에서 보았던 “로이”의 슬픈 이야기를 기억을 더듬어 전해주고 있다. 즉,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타인을 관찰한 이야기를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피서술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로이”는 이야기의 중심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내적 피서술자로 설정되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로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을 관찰한 내적 서술자로부터 전해 들도록 한 서술의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서술행위의 주체인 내포시인은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로이”로 하여금 새삼 자신의 이야기를 관찰자인 내적 서술자로부터 확인토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소통구조를 형성한 것은 아니다. 이는 이야기의 주체인 내적 서술자와 분리되어 있는 서술행위의 주체로서의 내포시인이, 이야기의 세계 안에 있는 내적 피서술자와 명백히 분리되어 있는 내포독자에게 내적 서술자와 내적 피서술자가 포함된 이야기의 세계 자체를 알려주고 이 이야기를 인식의 계기로 마련토록 하는 데에 있다. 서술시 「베트남 1」에서의 이야기는 내적 서술자가 타인을 관찰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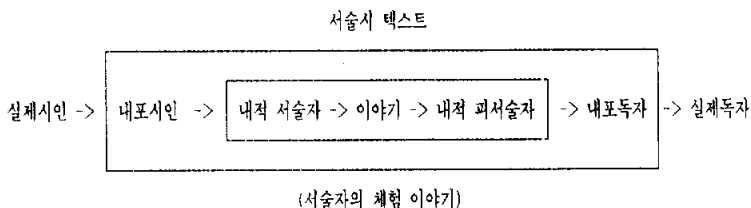
21) 김명인, 『東豆川』(문학과지성사, 1979)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 내적 서술자가 심리적 거리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내적 서술자와 피서술자가 포함된 이야기의 세계 전체의 전달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서술시의 소통구조 (4)는 서술행위의 주체인 내포시인이 내포독자에게 이야기의 주체인 서술자뿐만 아니라 피서술자까지 포함된 이야기의 세계 자체를 인식토록 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서술시의 소통구조의 마지막 유형은 이야기의 주체인 서술자가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서술자이며 피서술자 역시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피서술자인 경우이지만, 내적 서술자와 이야기의 관계가, 서술자의 타인 관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서술자 자신의 이야기일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서술시의 소통구조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서술시의 소통구조 (5)



위의 도표에서 작은 상자는 역시 이야기의 범위를 의미한다. 즉 이 소통구조의 경우도 앞에 보인 소통구조 (4)와 마찬가지로 서술자와 피서술자는 이야기의 세계 내에 존재하는 인격적인 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때 이야기 주체로서의 서술자가 타인 관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체험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앞의 소통구조 (4)와 구분된다. 그래서 내적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피서술자에게 전해주게 되는데, 내적 피서술자가 모르는 이야기의 내용도 섞이는 게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피서술자가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피서술자라 하더라도 이야기의 세계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내적 서술자의 이야기 내용 전부를 알고 있는 경우는, 내포시인이 내적 서술자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전달케 하는 시적 이유

나 목적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내적 피서술자가 이야기의 내용 전부를 알고 있는 경우는 오직 내적 서술자와 내적 피서술자가 다 같이 체험한 내용을 새삼 확인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 그래서 서술시의 소통구조 (5)의 경우는 내적 피서술자가 모르는 이야기의 내용도 내적 서술자로 하여금 내적 피서술자에게 전달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시의 소통구조 (5)를 지니고 있는 서술시의 예로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를 들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만 그렇게 위하시던 오빠의 거북무늬 질화로가 깨어졌어요 /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닐」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이가 / 지구에 해가 바친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담배의 독기 속에다 / 어린 몸을 잠그고 사온 그 거북무늬 화로가 깨어졌어요 // 그리하여 지금은 화젯가락만이 불쌍한 영남이하고 저하고처럼 / 똑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남매와 같이 외롭게 벽에가 나란히 걸렸어요 // ……(중략)…… 그리고 읊바…… / 저뿐이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영남이뿐이 군세인 형님을 보낸 것이겠습니까 / 싫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 세상에 고마운 청년 오빠의 무수한 위대한 친구가 있고 오빠와 형님을 잃은 수없는 계집아이와 동생 / 저희들의 귀한 동무가 있습니다 // 그리하여 이 다음 일은 지금 섭섭한 분한 사건을 안고 있는 우리 동무 손에서 싸워질 것입니다 // 오빠 오늘밤을 세워 이만 장을 붙이면 사흘 뒤엔 새 솜옷이 오빠의 떨리는 몸에 입혀질 것입니다 // 이렇게 세상의 누이동생과 아우는 건강히 오늘날마다를 싸움에서 보냅니다 // 영남이는 여대 잡니다 밤이 늦었어요 - 누이동생 -

- 임화, 「우리 오빠와 화로」²²⁾

이 텍스트는 ‘단편서사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텍스트이다. 그런데, 김기진이 처음 개념 규정한 이 ‘단편서사시’라는 용어는 사실 정확한 게 아니다. 임화의 텍스트 「우리 오빠와 화로」를 정확하게 개념 규정하면, 서정시가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좁은 의미의 서술적 서정시인 서술시에 속한다. 서사시와 서술시(서술적 서정시)는 이 글의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각기 다른 장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서술시 텍스트는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누이동생”이라는 내적 서술자가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오빠”라는 내적 피서술자에게 자신이

22) 『조선지광』 제83호(1929.2). 텍스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의 표기와 띄어쓰기로 바꾸어 인용한다.

체험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때 이야기는 내적 피서술자인 “오빠”도 같이 체험해서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모르고 있는 내용이 더 많다. “오빠”는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적 피서술자이긴 하지만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 서술시의 소통구조 (5)의 이야기가 내적 서술자 자신의 이야기라는 말은 이를 의미한다. 이 서술시가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야기의 초점은 피서술자인 “오빠”가 아니라 서술자인 “누이동생”에 있는 것이다.

이야기의 세계에 존재하는 내적 서술자인 “누이동생”은 내적 피서술자인 “오빠”가 체험한 잠깐의 이야기의 내용도 확인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내적 피서술자가 모르는, 서술자인 “누이동생”을 비롯한 동생 “영남”의 이야기를 내적 피서술자인 “오빠”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내적 서술자 자신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자신의 정서 표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적 피서술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잠깐의 “오빠”에 대한 느낌과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태도가 표명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술시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내적 서술자 “누이동생”은 스스로를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오빠와 형님을 잃은 수없는 계집아이와 동생 저희들의 귀한 동무”와 동일시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자신의 태도를 굳게 세우고 있다. 즉, 이 서술시 텍스트는 내적 서술자를 통해서 집단 의식을 고취하고 있는 것이다. 서술시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서술행위의 주체인 내포시인은 내적 서술자인 “누이동생”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내적 피서술자인 “오빠”의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내포독자로 하여금 이들 이야기의 의미를 알게 하고 또 내적 서술자의 정서와 태도에 공감토록 하고 있다.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집단 의식의 표명은 이러한 전략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서술시의 소통구조 (5)는 서술행위의 주체인 내포시인이 이야기의 세계 안에 존재하는 서술자와 피서술자를 내세우고 이야기의 주체인 내적 서술자의 입을 빌어 서술자 자신이 중심이 된 이야기를 내포독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내포독자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잘 인식토록 하고 또 내적 서술자의 정서와 태도에 공감토록 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4. 맺음말

이 글은 서술적 서정시라는 좁은 의미의 '서술시'의 소통구조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글이다. 이를 위해 채트먼과 주네트의 소통구조론을 원용하고 있는데, 이를 서술시의 장르적 성격에 맞추어 굴절시켜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바, 서술시의 소통구조는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유형은 외적 서술자가 외적 피서술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소통구조는 서술행위의 주체인 내포시인이 집단적이고 원형적인 이야기를 이야기의 주체인 서술자의 권위를 통하여 피서술자와 밀착되어 있는 내포독자에게 널리 수용토록 하는 경우가 된다. 두번째 유형은 내적 서술자가 타인 관찰의 이야기를 외적 피서술자에게 전달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소통구조는 서술행위의 주체인 내포시인이 내적 서술자의 관찰 이야기를 외적 서술자와 밀착되어 있는 내포독자로 하여금 내적 서술자의 관찰에 합하여 인식토록 하는 경우가 된다. 세번째 유형은 내적 서술자가 자기 체험의 이야기를 외적 피서술자에게 전달하는 유형이다. 이 소통구조는 서술행위의 주체인 내포시인이 이야기 주체로서의 내적 서술자를 내세워 그가 겪고 있는 이야기를 외적 서술자와 밀착되어 있는 내포독자에게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내적 서술자의 정서에 공감토록 하는 경우가 된다. 네번째 유형은 내적 서술자가 타인 관찰의 이야기를 내적 피서술자에게 전달하는 유형이다. 이 소통구조는 서술행위의 주체인 내포시인이 내포독자에게 이야기의 주체인 서술자뿐만 아니라 피서술자까지 포함된 이야기의 세계 자체를 인식토록 하는 경우가 된다. 다섯번째 유형은 내적 서술자가 자기 체험의 이야기를 내적 피서술자에게 전달하는 유형이다. 이 소통구조는 서술행위의 주체인 내포시인이 이야기의 주체인 내적 서술자의 입을 빌려 서술자 자신이 중심이 된 이야기를 내포독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내포독자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잘 인식토록 하고 내적 서술자의 정서와 태도에 공감토록 하는 경우가 된다.

이상, 서술시의 소통구조를 간략히 정리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인 특징 시인

의 서술시들이나 특정 시대의 서술시별로 그 특징을 검토하는 데에 활용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술시의 소통구조의 유형이 문학내·외적 의미와 연관되어 보다 심도를 지니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